주인공 내게 있으니 걱정없이 살라

☞ 19면에서 계속

다. 그래서 저는 걱정도 되고 이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라면은 적당한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따도 별로 상대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겪어보니 안 좋고 내가 잃으면은 안 할걸 하고 후회되고, 안 했으면 좋을 건데 하고 반복해서 걱정이고 해보면은 끊어야 되나 안 끊어야 되나 항상 의문이고 저 보다도 우리 보살은 또 더 좋아합니다. (대중웃음)

▲스님: 하하하

▲질문자3: 오늘은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스님의 가르침에 "무자르듯이 탁 끊어라." 하면은 평생을 안 쥘 각오는 돼있습니다.(대중웃음) 그러나 이것은 놀이로써 하되 중심을 잡고 서서히 끊어라. 뭐 어떤 가르침을 주시든 저는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지극해져

▲스님: 그거는 하라 하지 마시라 하고 내 자유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은 꼭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하면은 잃거든요. (대중웃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텐데 어떡하다가 하면은 그냥 또 모두 잃는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증권 있죠? 어떤 분이 증권을 하다가 몇 천 만원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한번만 딱 해주시면 (대중웃음)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울면서.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깐 자기가 산 것만이 올라가더랍니다. 자기가 산 것만 올라가고 딴 데건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얼른 또 욕심부려서 그거 망할까봐 빨리 팔아서는 빚 다 갚고 다 해결했다고 와서 그러더군요. 그랬으니 망정이지 또 욕심을 잔뜩 부려 가지곤 더 올라가라고 그냥 뒀다가는 큰일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자신들이 잘 생각하세요. 나보다 덜 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생활하시면서 어렵다는 건 다 아시죠? 어렵다는 걸 아시면 이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북하면 노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돈 잃어 버려도 찾을 길이 없고 또 찾는다고 해봤자 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장난으로 저거 하면은 선생님 말마따나 장난으로 그저 두어 서너 번 치고 그만 두었으면 좋으련만 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돈이 그대로 있나요?

▲질문자3: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대중웃음) 요번 여름 휴가철에는 한마음요전을 가지고 화투하고는 멀리하고 또 한마음 정진에 매진하도록 스님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그러면 더더욱 좋고요. (대중박수) 감사합니다.

▲질문자4: 은혜 감사합니다. 무지한 중생을 한마음 법과 인연 맺게 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마음선원과 인연 맺은 지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인연 맺고 난 이후 하루 하루가 너무 즐겁고 희망찹니다. 스님 가까이서 뵙고 싶어 가지고 질문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님: 하하하.

▲질문자4: 법문 넓히는데 큰 일꾼 되기 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질문자4: 그리고 초심자들 공부하는 길에 가르침 하나 부탁말씀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앞서 질문자가 말씀드려서 그만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가 공부가 안되느니 되느니 하지만은 진짜로 자기를 자기가 믿는다면요,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막을 수 있게끔 자기 형상 아닌 형상이 되어서 벌써 맡고 있거든요. 모두 그거를 모르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렇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지 믿지 않는다면은 누가 심부름을 진짜로 해 주겠습니까?

그러고 아까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그렇고, 그거를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나 건재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잘 가르치면은 크게 이룰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부모 조상님들이 잘못돼서 자손이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무데나 갖다가 묻어놔도 물 지옥이 있고 나무 뿌리 지옥이 있고 돌 지옥이 있고 이렇게 지옥이 있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데 들어가도 편안하게 잘 있을 수 있다면 조상도 참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이 편안해야 자손들도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에, 자기 주인공에 조상님들도 우리 자손들을 돌보시려면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하고 관리하시게 하고 정히 어려우면 그렇게 라도 하시고 또 항상 진짜로 믿는다면은, 진짜로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지금 제3자를 믿어서 대신 살아줍니까? 그러니깐 자기 아닌 자기를 믿어 야죠. 길게 내려오면서 자기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해도 자기이니까요.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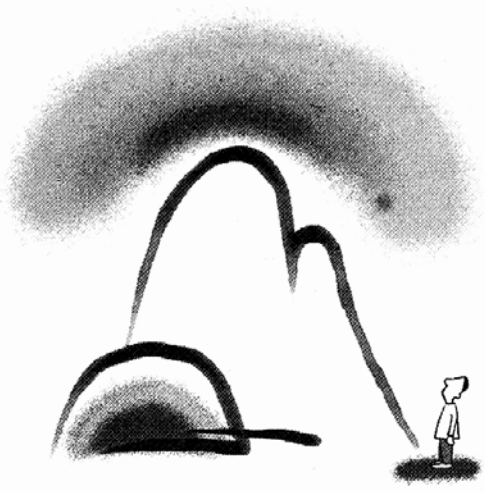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안 보이는 근본자기 진짜로 믿고 '너만이 할 수 있다' 고 맡겨 놓으니 거기서 모든 걸 다하게 되는거죠

조상 편안하면 자손 편안

진짜로 믿어야, 옛날에 도술을 익히는데도 그런 공부가 아니라면 도술을 익힐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모두 어느 산으로 어떤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스물도 더 되고 서른도 더 되고 점점 늘어나서 많으니깐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모르니깐 잡지를 못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산에서 칼싸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깐 그 사람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겼더랍니다. 그러고 한사람이 말을 하는데 열 사람 스물 사람이 다 말을 하더랍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잡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갔답니다. 그러니깐 이 도술이 아니라면 도심이 아니라면, 믿지를 못하면 안되죠.

지금 어떠한 물건이 도저히 에너지가 없다 이런다면은, 모든 국민이 에너지가 있어야 살텐데 에너지가 없으면 죽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믿어야지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통신처가 막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지 않고 네가 너를 믿지 않고 어떻게 살려느냐 그러더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로 믿고 그랬더니 살 길이 생겼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연구하는 것이 며칠 안 있으면 발표를 하게 된답니다. 그냥 에너지 전기가 나오는 거 말입니다. 전 세계가 다 써도 남을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밥을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모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들도 못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급한 게 무엇이냐? 한다면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널리 해 보면 제일 급한 게 뭐냐고 할 때 생각이 날텐데 말입니다. 제일 급한 게 뭔지 생각이 나세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요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자라는 애들도 살벌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살벌하고, 문제가 아주 요상하게 생기죠. 근데 이런 문제를 말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만이 또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그걸 말로 할 수가 없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무의 세계의 그 오고감이 없이 오고가는 문제들은 요만큼도 잊지 않고 요만큼도 잊어버리는 이치가 없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신계와 물질계, 이 몸이나 정신계나 둘 아니게 같이 움죽거릴 수 있다면, 그렇게 움죽거리게끔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자기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찾는 거거든요. 진짜로 믿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니깐, 모든 거를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놓으니깐 거기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그렇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게 진짜 나이지 살다가 죽는 거는 진짜 자기가 아니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전체 생각을, 앞으로는 세상이 그렇질 않아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애들도 잘 배워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두루 하신다면 산에서 야호 하면 야호 하고, 악을 쓰면서 야호 하면 야호 하는 게 다시 들어와서 악 쓰듯 들리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치기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치기를 믿고 잘 하신다면 사방에 그 공이 떨어져서 모두 통신이 된다고요. 무의 세계는 모든 통신이 된다고요. 잘못되게 하는 일들이 없거든요, 무의 세계에서는. 산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 죽은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도 한 친구니까, 둘로 보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왜 언짢게 하겠습니까? 둘로 보고 팽개치는 일들이 있으니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깐 생각을 한번 하더라도, 전에 얘기입니다만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추를 다 따가고 남은 찌꺼기 요만한 거를 배가 고파서 땄더니 네 배를 채우려고 어떻게 남의 고추를 따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고추가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어디쯤을 가다가 보니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위를 꺾으려니까 너무 아파할 것 같고 밑에를 꺾으니깐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래도 그건 밑을 먹어야지 어떻게 위 순을 짤라 먹습니까? 남의 생명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더불어 살자' 그러고서는 밑을 꺾어서 껍데기를 벗기고 먹었죠.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었느냐? 진짜로 믿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믿지 않는 다면은, 누가 생각하다가 아휴!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꼭 해 줘야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속으로만 생각할 때에 누가 그거를 얼른 받아서 합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러고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보물이고 정말 좋은 보배죠.

사람 마음은 인정 있어야

하루 종일 내가 나가서 저거 한데도 너는 하루종일 굶지는 말아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뭘 먹든지 먹게끔 하거든요. 그건 뭐든지 다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잘 나고 똑똑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가서 돌아 다녀 보세요. 잘 나고 똑똑하고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좀 자고 가자고 그러니깐 산에도 거지가 있나? 이러고선 뒷덜미를 잡아서 저리로다 갖다 놓는 거 있죠, 하하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인정이 있고 없고 간에 인정이 있어야 되겠다 한거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해를 보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더 잘 아시겠죠. 할 수 없는데도, 그 방면에 할 수 없다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끔 그릇을 더 크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다면은 통신처가 영 없어집니다. 그러고 자기 주인공이 없습니다.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꼭 그렇게 해서 자손들도 고생 안 하고 살게끔 다 가르치시고요.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의 주인공은 너한테 보디가 드처럼 항상 따르고 있다. 그러니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공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너의 주인공을 항상 지니고 있으니 진실로 믿고 그렇게 해라.' 이런다면은 자손들도 공부를 잘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들은 다 버리고도 여러분이 잘들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2001년 7월 1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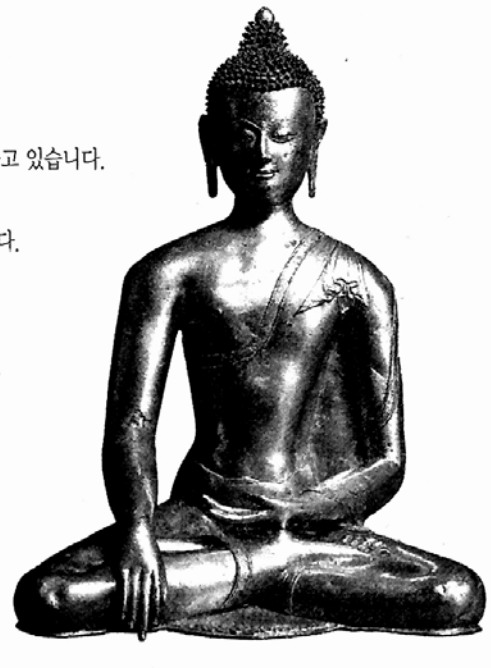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개관 2주년기념 특별전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티베트 불교유물특별전' 의 일환으로 티베트 스님들을 초청하여 만다라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불교미술을 대표하며 신비에 쌓여 있는 만다라는
우주의 원리를 기하학적으로 함축하고 있어 최근 전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오시면
여러 종류의 만다라가 제작되는 과정을 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부르는 티베트 특유의 밀교의식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시기간 : 2001. 6. 25~9. 17(3개월간)
매주 화요일 휴관(단, 7. 25~8. 15까지는 휴관 없음)
전시장소 : 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유물 : 티베트의 탕카, 불상 등 불교유물과 의상 등 민속품 300여 점

특 · 별 · 행 · 사

■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제작
기 간 : 2001. 7. 8~8. 5(1개월간)
장 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
일 정 : 오전 10:00~11:30 / 일반 만다라
오후 1:30~4:30 / 모래 만다라
7월 14 · 15 · 21 · 22 · 29일 오후 1:00~2:30 / 진색의식(총5회)
※ 진색의식 : 축원문 및 곡식을 태우면서 자신의 액운 등을 날려보내는 의식으로 수명장수, 부귀, 액운소멸 등을 기원

■ 티베트 스님 초청강연
일 시 : 2001. 7. 27(금) 오후 1시
장 소 : 박물관 문화센터

통도사장 범 하 합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TONGDOSA MUSEUM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055) 382-1001, 384-0010
http://www.tongdomuseum.or.kr